

산업부, K-섬유판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230억원 지원한다

산업통상부 보도자료(2026. 2. 3.)

 산업부는 「섬유판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」 사업을 통해 K-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과 고부가 섬유 제작 및 수출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.

-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K-섬유판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」을 공고('26.2.2)하고 참여 기업·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- K-섬유판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-컬처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*이 확대되고 있어,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, AX·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*소비재 한류영향계수('24,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): 의류 17.6%, 식품 17.4%, 화장품 17.1%, 가전 4.7%
- 올해는 ▲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+K소재+K제조 (All in Korea)에 기반한 K-굿즈 제작, K-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-섬유판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, ▲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-섬유판션 제조 기반 혁신, ▲고부가·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.
-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(www.kiat.or.kr), 보조금통합포털(www.bojo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.
-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“K-섬유판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·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”라며, “정부는 기술·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-섬유판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